

## 2010.08.30 미래정책연구실

### □ 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애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낮아 (REUTERS통신 (2010.08.20, 2010.08.25) 주요 내용)

- FAO의 경제학자는 최근 기상악화로 인해 세계 밀 가격이 2개월 동안 2배로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함.
  - FAO 경제학자와 곡물분석가인 Abdolreza Abbassian은 로이터 전화 인터뷰에서 밀 가격이 향후 수개월 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다소 변동이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의 위협요인은 아니라고 언급함.
- 8월 초 시카고의 밀 선물가격은 2개월 간 지속된 러시아 가뭄 등의 영향으로 부셸 당 8.41달러로 2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세계 밀 재고량의 영향으로 인해 부셸 당 7달러로 떨어짐.
  - 이 가격은 애그플레이션을 겪었던 2008년도 2월의 최고가인 부셸당 13.34달러의 약 50% 수준에 불과함.
  -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는 물량이 충분한 미국으로 수입처를 옮기고 있음.
- 우크라이나 농업부(Ukraine Agriculture Ministry)는 수출 할당량에 대해 무역업자와 시장조건에 따라 8월 25일에 결정하기로 함.
  - 농림부 장관인 Mykola Prysyazhnyuk는 2010/11년의 수입할당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힘(REUTERS통신 2010.08.25).

#### (시사점)

- 러시아발 밀가격 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은 낮으나 여전히 밀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망 필요.

### □ 러시아의 곡물 수입 전망

(FINANCIAL TIMES (2010.08.19) 주요 내용)

- 러시아 가뭄의 영향으로 밀 가격은 5% 이상 상승함. 러시아는 지난해 까지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밀 수출국이었으나, 올해 들어 수확량이 줄면서 곡물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곡물을 수입하기로 함.
- 8월 18일 러시아 비즈니스 페이퍼 'Vedomosti'에서 농업부는 최소한 5백만 톤의 곡물을 수입할 계획 중이라고 보고함.
  - 정부관계자들은 5백만 톤 곡물 수입을 반대하지만 민간부문 분석자들은 거의 대체로 찬성하고 있음.
- 모스크바 농업 지문회사인 SovEcon은 러시아는 현재 곡물년도에서 3백만 톤 이상을 수입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, 러시아 곡물 연맹(Russian Grain Union)은 2백만 톤~250만 톤의 수입을 예상함.
  - SovEcon 사장은 러시아는 처음으로 곡물 순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말함.
- 러시아의 곡물 수출금지조치로 인해 미국은 올해 밀 수출량이 36% 증가하였으며, 이로 인해 수출기업과 농민들에게 이익이 발생함.
-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밀을, 보리와 옥수수는 우크라이나와 같이 운송비용이 적게 드는 접경국가들로부터 수입할 것으로 예상됨.